

Ⅱ. 인터넷족보진행보고 (인터넷 족보 재구축에 즈음하여)

1. 들어가는 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이 신인류라고도 칭하는 젊은 세대에게 과연 족보란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있을까?

특히, 인터넷의 발명과 함께 실질적인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지 이미 20여년이 흐른 지금, 사회는 더욱 복잡다기화되어 가고 친족의 개념조차 점차 희박해지는 작금에 족보의 의미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찌 생각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진부한 용어로 인식될 수 있는 족보와 젊은이들에게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인터넷을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고민이 모든 종회 임직원들의 공통된 화두가 아닐까 한다.

2. 인터넷 족보 구축의 당위성

족보란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그 가계(家系)를 나타낸 책으로, 시조로부터 동일 혈족의 원류를 밝히고 역대 조상의 일과 역사를 담은 책으로서, 효의 근본을 이루는 동시에 현재 나 자신의 뿌리를 밝히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근간이 되는 집안의 역사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더욱이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및 2008년 1월 호적법의 폐지로 조상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족보뿐임을 감안할 때 족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서책족보는 통상 20~30년을 주기로 만들어져 종원들의 생줄, 경력사항 등 변동사항에 대한 즉응성이 떨어지고 방대한 분량으로 보관 및 이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종원뿐 아니라 세계방방곡곡 자자손손 이어지는 후대의

종원들에게도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인터넷 족보를 구축하여, 그들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고 훌륭한 선조들의 행적을 밝혀 丁門의 후손임에 자부심을 심어주고 孝가 인륜의 근본임을 교육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인터넷 족보 구축의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3. 우리 종회의 그간 구축 경위 및 문제점

우리 종회는 다른 어느 종중보다 앞서 2003년부터 4회에 걸쳐 나주정씨 월현종회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구축을 시도하였다.

2003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운용한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는 관련문서의 멸실로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없으나, 당시 지금에 비해 저급한 인터넷 환경과 전자족보에 대한 관심 미흡 등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3차로 2009년 8월에 ‘족보나라’와 계약하여 2011년 6월에 완료한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는 계보도 및 개인 생줄 및 경력 사항 등 나름 형식과 체계를 갖추었으나, 전자족보 구축에 가장 중요한 DB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DB가 족보형태로 구축되지 않아 새로운 족보를 출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통계가 구동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2015년 12월 까지 일부를 보정하면서 운영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4차로 2016년 1월 ‘가승미디어’와 새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체의 계약 수행능력 부족 및 종회의 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계약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2019년 3월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종회는 3차로 ‘족보나라’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체계를 다시 이용하고자 2018년 9월 ‘족보나라’와 운영유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20년 6월 종회의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체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종회의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체계가 다운되면서, 홈페이지가 임의로 변조되었을 뿐 아니라 홈페이지에 탑재되었던 월현회지 등 각종 자료가 멸실되었고, 전자족보 역시 변조 및 일부 누락되어 2020년 8월 7일까지 원상회복을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업체가 응하지 않아 동년 8월 20일 자로 운영유지계약을 해지하고, 2020년 9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원의 결정으로 2021년 5월 10일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2021년 5월 20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세부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1년 6월 30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매월 말일에 1천

92 월현회지

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 및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된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 현재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족보 E-book 등 원고의 데이터 전체를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원고에게 교부한다.
3. 원고가 타 업체를 통해 홈페이지를 신규 개발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의 데이터 이전 및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구축시 발생된 문제점은

- ① 구축 준비단계부터 무엇을 왜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적 사고를 통한 목표의 구체화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업체의 제안에 의지하여 추진한 점,
- ② 계약자 선정시 업체의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면서도 철저하게 계약관리를 하지 못한 점,
- ③ 전자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DB 검증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어 DB를 신뢰할 수 없는 점,
- ④ 제시된 몇몇 통계가 구동되지 않으면서도 계약을 종결하는 등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4. 재구축 방향

과거 4차례에 걸친 구축 실패는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였다는 큰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금번 인터넷족보 재구축 추진은 과거의 실패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한편, 재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종원 중 정보화 전문가를 선정하여 매 단계마다 적극 활용하며,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고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여 업계 최고의 3개 업체에 응찰을 요구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계약업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뿌리정보미디어’와 2021년 5월 25일 총계약금 약 8천6백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은 2021년 12월 31일에 완료하되, 2022년 1/4분기 동안 시범운용을 거쳐 2022년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금번 새로이 구축하는 나주정씨 인터넷 족보 시스템은 이미 2020년 1월 새로이 구축된 나주정씨 대종회 홈페이지와 연동할 계획으로 본 계약에서 홈페이지 구축은 제외되었으며, 인터넷

족보 DB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와 인터넷 족보 DB 검증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금번 추진하는 인터넷 족보의 주요 구축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PC와 모바일 겸용으로 개발한다.
2. 인터넷 족보 구축 범위는 기묘보의 인명록에 2013년 1월부터 2021년 5월말까지 종회에 접수된 수단신청분을 포함하며, 각종 문헌, 부록, 화보 등을 인터넷 족보 완성 후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족보 발간시 족보 종류(대동보, 파보 등)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3. 족보 편집시 세로 우배열 종서, 한글번역으로 하되, 이름/초명/아호, 관직명 연호, 계보도 등 주요사항은 ()에 한자를 병기하며, 중원의 이민, 외국인 머느리/사위 등의 경우 한글 이름에 영문이름을 병기하되,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경력사항 역시 영문을 병기한다.
4. 글자크기와 행간 등은 이름의 경우 20포인트 해서체로 하고, 방주는 명조체 10.5포인트, 6단, 9자고, 8자평, 32행으로 편집한다.
5. 인터넷 족보 검색 및 보기 기능, 각종 통계(파별/세별/본관별 배우자 통계 등)는 제안요청서 및 업체에서 제출한 팜프렛에 정한 바대로 구축한다.

5. 맺음말

우리 종회는 1999년 발간한 한자 족보를 누구나 읽기 쉽고, 알기 쉽게 국한문 혼용 번역 족보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초정보화 사회이고 밀레니엄 시대,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정보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인터넷 족보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접근이 용이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거의 실시간 살아있는 족보를 구현하여 기성세대는 물론 새로운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인터넷 족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정보화체계는 활용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빠르게 수요자 중심으로 진화됨을 감안할 때 인터넷 족보가 구축되면 더욱 많은 종원들이 참여해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 족보가 정착되길 기대한다.